

의료조무사의 제도화 시급



글 · 이상호
우리들병원장

미국의 척추 신경외과 의사 찰스 레이의 수술을 견학한 적이 있었다. 수술을 보조하는 사람의 기술이 좋았다. 나는 그를 시니어 레지던트라 생각하고 수술 장갑을 벗고 있는 그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레지던트가 아니고 의료조무사였다.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2년과정의 의료 조무사 과정을 마치고 척추 수술 전문 의료 조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간호사의 간호 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라 하는 것처럼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조무사(Physician Assistant: PA)라 하며 그 제도를 1965년에 만들었다고 한다.

의사 찰스 허든슨 제안, 65년 미국 듀크대에 '의료조무사' 과정 첫 개설된 이래 현재 130개 대학에서 인력 양성, 5만여명 활약

처음 의료조무사의 개념은 1961년 6월 10일 찰스

허든슨 이란 의사가 미국 의사 협회지(JAMA)에 <의사가 아닌 비전문인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증진> 이란 논문을 기고했다. 그가 육해공군에서 겪은 의료 경험은 비교적 적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효과적으로 의료 조무를 수행한다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듀크대학교가 1965년에 처음으로 의료조무사과정을 개설하고 해군 위생병 출신 4명을 간호학,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동물 수술실험, 전자학을 가르쳐 총 45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을 준 이래 8년 동안에 위스콘신 대학교, 예모리대학교, 조지워싱턴대학교, 바우만그레이 의대, 예일대학교, 플로리다, 미시간, 덴버, 아이오와, 네브라스카대학교 등에서 연이어 이와 비슷한 의료 조무사 과정이 설치되었다. 1969년에는 시애틀의 워싱턴 의과 대학에 리차드 스미스란 의사가 육해군 위생병 출신 15명의 군경력을 인정하여 3개월간 워싱턴 의대에서 집중교육을 한 후에 12개월간 가정 의학 진료를 보조하게 되면 자격을 주는 단기 과정 의료조무사과정을 개설한 이래 이러한 단기 과정이 유타, 노스다코타, 하워드, 알라바마,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다르트 마우스 의대, 찰스 드류의과대학,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대에 개설 되었다.

듀크대학교를 시작으로 40년 동안 개설된 의료 조무사 과정은 국민들의 치료의 열망에 의하여 무려 130개 대학에 개설되어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다.

캐나다 의사협회는 의료조무사들에게 지원교육을 하고 캐나다 국방의과 대학에 12개월간 교육 과정을 만들어 건강관리, 보건 의료 서비스, 환자과 의사들 사이의 연결 역할을 맡기고 있다.

미국 130개 대학의 의료 조무사 과정은 대부분

2년(24개월) 과정인데 2년간 대학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나와 군에서 위생병을 지내거나 공무원으로 보건소 계통에 근무했거나 병의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4년 이상 쌓은 사람이 지원 자격이 있다고 한다.

의료조무사는 한국의 전공의 역할이나 평생의 의사의 진료를 돕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레지던트가 수련하지 않는 병의원에선 이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미국 의료 조무사란 쉽게 말하면 한국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는 역할 같은 것인데 레지던트 보다 더 오래 그 병원에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의사의 일을 조무 한다는 것이었다. 레지던트와 틀린 점은 레지던트는 교육과정이 끝나면 가버리는 반면에 이들은 평생을 레지던트가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레지던트 일 전문 의료조무사인 것이다. 레지던트는 젊고 경험이 적는데 비하여 의료조무사는 평균 연령이 42세로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고 평균 임상 경험이 9년 이상이라서 레지던트보다 경험지식과 책임감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 의원 및 병원에서는 레지던트가 없으므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올해 현재 52,716명의 의료조무사가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2008년까지 미국 전체 의료조무사를 48% 더 늘리려는 것이 미국 노동부의 계획이다. 미국 의료 조무사들은 의원과 병원에서 레지던트처럼 의사의 진료 영역의 80%를 보조한다. 실제 미국 의료조무사의 분포도를 보면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 외

래 근무가 37%, 보건소등 의료 전문 공직이 13%, 42%가 레지던트가 없는 개인 클리닉 이나 전문 집단 개원의들과 일하고 있다.

의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를 의사입장에서 훌륭히 보조함으로써 진료업무의 효율을 높인데 의료조무사가 크게 기여함

의료 조무사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자. 간호사와 의사의 사이에 간호사는 할 수가 없고 의사의 손이 닿지 않는 의료를 의사의 입장에서 보조한다.

외래 입원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들은 만나기 힘든 주치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자주 보게 한다. 레지던트들이 의무 기록을 기록하고 환자 처방을 대신 내듯이 의료 조무사들은 검사, 시술, 처치의 오더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대신 적어 낸다. 레지던트처럼 수술 전에 상세히 진찰을 하여 의사에게 보고 한다. 처치나 수술을 끝내고 의사가 새 환자를 보러 가면 그 사이에 의료 조무사는 수술 후의 상처를 관리한다. 봉합사를 제거하고 의사 대신에 상처를 드레싱한다. 의사가 회진하고 오면 그 지시 사항을 받아서 임상 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혈관 촬영술, 컴퓨터 단층 촬영, 각종 특수 검사를 용지에 또는 컴퓨터에 대신 오더한다.

수술 전 후에 이런 검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사의 입장에서 점검해준다. 의사가 지시한 사항을 다시 점검하며 수술 전후 투약관리 및 수술 전후에 해야 할 일을 대신 챙긴다. 검사 결과도 사전에 체크하여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즉시 알린다. 집중치료실로 이동 중인 환자를 중도에 가보고

각종 카테터 설치, 튜브 설치, 드레인 조절을 해준다. 의사들의 퇴원 요약을 대신 적고 의사 처방을 대신 받아서 적으며 퇴원후에 조리법을 상세히 교육해주면서 외래 약속을 대신 점검해준다.

수술 전후 동의서를 대신 받아주고 수술 전후 주의할 점을 대신 상세히 안내한다. 의사들이 아침 컨퍼런스를 할 동안에 의료조무사들은 아침 8시 전에 모든 처치 수술 준비가 철저한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점검을 대신해준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오더를 의료조무사들이 레지던트처럼 대신 내어 주는 사이에 의사는 환자 보호자를 만나 설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무적인 잡다한 일들을 의사들이 직접하다 보면 정작 의사가 직접 해야할 진료 업무의 효율은 떨어져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진료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외래 입원 모두 밀려 연장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레지던트들이 교수의 지시를 받아 해주듯이 의사의 지시로 의료조무사들이 해결해준다.

수술에 필요한 의료장비 기구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또 의사들이 일일이 배울 수가 없는 새로운 의료 장비 기구 사용법을 의료조무사들이 대신 교육 받아 준다. 수술 테크닉도 대신 교육을 통하여 전달 되는데 의료기 회사와 의사의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 조무사들이 여러 의사들에게 배우므로 의사들이 바뀌어도 각기 다른 테크닉의 의사들 사이에 전달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병원의 가치 있는 기술이 축적이 되고 최소한 유지 시켜 준다는 것이다.

레지던트들이 임상 연구나 실험을 조사를 하듯이 진료와 수술에 바쁜 의사를 조무하여 그 의사의 이

름으로 환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적는 등 임상 연구 조사를 대행하므로 의사는 환자 진료에 몰두함으로써 의료의 질도 올라 간다. 실제 미국 의료 조무사의 11%가 연구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의료조무사 제도화, 양성화 시급히 이루어져야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의 교수들과 대형병원의 의사들만이 의료조무사(전공의)들의 조무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받는다. 그래서 찰스 레이같은 개원 의사들도 대학교수처럼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여유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실제 보통 의료조수라고 부르며 의료에 참여하고 있으나 제도화 되지 않고 있다. 지난 40년간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국립 의료조무사 자격 관리 위원회>를 두어 국가 시험 자격증을 관리하고 <의료조무사>에 대한 법과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 제도를 아직 양성화하지 않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전국의 대부분의 의원과 중소병원은 물론이고 실제 레지던트가 없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특수과들은 이미 의료 조무사들을 오래전부터 고용해오고 있지 않는가?

빨리 대학과정과 국가 시험을 통해 미국처럼 의료 조무사로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의료 보건 관리의 질 향상과 건전한 보험 재정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2